

## 개항 이전 한국 지도의 형태 변천\* (Die Entwicklung der Kartographie von Korea)\*

김 재 완\*\*  
Jae-Wan Kim\*\*

유럽인들이 지금까지 단지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체류할 수 있었던 지구 상 모든 지역 가운데, (코레아)정부가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여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반대하여 자신의 나라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현재 코레아 반도는 특별한 흥미를 끌고 있다. 결국 일본의 소개가 뒷받침된 미국의 정력적인 노력 덕분에 국제 무역을 위한 최소한 몇몇 항구를 강제로 개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때문에 한 동안 한반도에 대한 지식의 진보가 없으나, 내년 중에 코레아가 또한 이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철을 밟아 외국들에 점점 더 개방되고, 그 결과 천문학적 관찰을 통해 접근 가능한 해안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륙 측량 및 연관된 해안 측량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비록 한국이 반도로서 대양으로 멀리 뻗어 있고, 그 국경의 대부분이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이 경계가 대략 알려질 때까지 수 백 년 간 코레아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수십 년 간의 노력의 덕분에 코레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8과 9세기경 아랍인들은 코레아를 독립국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코레아를 실라(Sila)라고 불렀다; 아랍의 대담한 상인들은 종종 이 외진 해안까지 여행을 했으며, 일부는 서해안의 수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랍과 중국 사이의 무역 관계가 끊어지자, 또한 반도 존재에 대한 인식도 사라졌다. 그 결과 마르코 폴로의 (저서)에서도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 네덜란드인이 17세기 초 그들의 탐험 및 무역 시도를 일본까지 확대하였을 때, 비로소

유럽인들은 코라이(Korai) 땅과 직접 접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목적 및 경험담에 기초한 첫 보고가 네덜란드인 하멜로부터 나왔다. 비록 그가 여기 이곳에 발을 디딘 첫 유럽인은 아닐지라도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강제 억류 후에 운 좋게 탈출하여 은둔의 나라에 대하여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첫 유럽인이었다. 물론 그의 보고가 일본과 중국 문헌의 연구를 통해 훌륭하게 확인될 때까지 그것은 오랫동안 내내 거짓말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많은 연구자들의 운명과 같이 하였다. 그는 1653년 켈파르트(지금의 제주도) 해안에서 “스페르베르(Sperber)” 호의 난파로 몇 명의 동료와 함께 한국인들의 구금 상태에 빠졌다. 그는 그곳에서 이미 오랫동안 억류되었던 네덜란드인을 만났다; 그들은 수도인 킹키타오(Kingkitao), 지금의 서울로 이송되었으며, 일부가 1667년 남해안에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직업, 주로 군인으로서 지방 여기저기에 보내졌다.

그러나 이 이상한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13세기 몽골 칸들에 게 파견되었던 유럽 사절의 보고 이후 이미 코레아는 특히 유럽 지도에 등장하였다. 1253년 교황 루드비히(Luswig)의 위임으로 고비(사막) 북쪽 변두리 몽골 수도 캐라코람까지 여행하였던 프랑스 대사 Ruysbroek 또는 Rubruquis의 지도에 처음으로 코레아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몽골에서 코레아의 사신을 만났다고 기술하고, 그 여행기에 첨부된 지도에 코레아를 일본의 북서쪽에 위치한 큰 섬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표시는 심지어 이 시기의 중국 지도에와 같이 중세의 모든 지도첩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도에는

\* Petermanns Mitteilungen 29권, 1883. S. 341-4를 번역한 것임.

\*\* 서원대학교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Dept. of Geographical Education, Seowon University)(mentor61@hanmail.net)

코레아의 명칭인 조선(Tschosen)과 비슷한 조셴(Tschau-sin)이 표시되어 있다; 중세의 유명한 지리학자들인 Mercator, Ortelius는 Corey 혹은 Coria를 단지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성경들은 17세기 초 코레아의 지도에서 첫 진보를 가져 왔다. 네덜란드 성경들의 세계 지도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Korai 앞에 놓여 있는 섬 켈파르트가 등장한다. 코레아의 섬 형태는 또한 여전히 지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1653년 암스테르담에서 발행된, 중국 문헌에 따라 예수회원인 Martin Martini가 편집한 중국지도첩에는 대체로 정확한 코레아 지도가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 비록 형태가 너무 조약하고 심지어 지나치게 가늘고 길게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분명히 식별 가능한 반도의 형태를 우리는 이 지도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켈파르트는 Fungma 섬으로 기입되어 있고, 또한 남해안은 실제 모양처럼 매우 밀집된 섬들로 둘러싸여 있다. 섬 형태의 코레아 표시가 지도들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빌(D'Aville)의 주목할만한 지도 작업이었다. 당빌(D'Aville)의 지도는 17세기말과 18세기 초 강희제의 명령으로 예수회원들이 지도 측량과 중국 문헌에 기초하여 편집한 것이다. 당빌의 지도 작업 덕분에 코레아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코레아의 지도에서 주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던 Regis 신부가 제작한 코레아 지도가 당빌이 1732년 편집하여 출판한 지도를 근거로 한 뒤알드(Duhalde) 신부의 지도첩에 실려 있다. 이와 비슷한 지도는 서울의 왕궁에 보관되어 있는 큰 코레아 지도들이다; 지도들은 예수회 신부의 작업을 위하여 코레아의 문헌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서울로 갔던 중국인 사신들이 보고, 배겼던 것들이다. 이 사본은 요즘 여전히 대개 코레아의 지리 상황에 대한 우리 지식의 토대가 되는 기초 자료이다. 당빌의 지도는 물론 수리적 측량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 해안선의 윤곽에서 실제와 상당히 다르다; 마르티니 지도에서는 반도가 지나치게 가늘고 긴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당빌의 편집은 모순되는 오류를 범하였다. 더구나 오류는 서해안을 둘러싼 복잡한 섬들이 육지로서 표시되어 있으며, 그림으로써 해안선이 서쪽으로 2.25도가량이 밀려 나와 있다. 반도의 윗 부분이 대륙과

관련하여 상당히 정확한 크기를 보여주는 반면, 왜곡은 남쪽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동해안은 대체로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대륙의 지리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도시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반도의 주산맥이 동해안에 바로 인접하여 달려가고 있다. 동해안은 가파르고 경사지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단지 작고 짧은 해안 하천들이 이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반면에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완만해지는 경사가 수많은 하천들의 발달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고 있다. 당빌 지도에서 코레아 지명 표시는 중국식 발음을 따랐다.

다음의 수정은 18세기말경 쿡(Cook) 선장의 항해가 지리상 발견에 대한 흥미를 다시 깨운 후, 대해군 장국들이 착수하였던 수리 측량이 다음의 수정을 초래하였다. 'Boussole'호와 'Astrolabe'호를 거느린 라 페루즈(La Perouse) 하의 프랑스 세계 일주 항해 탐사선단이 1787년 코레아 근해에 처음으로 출몰하였다; 물론 그는 본토를 전혀 보지 못했고, 다만 그는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항해할 때 켈파르트와 남해안에 놓여 있는 몇몇 섬들의 위치를 확정하였다. 코레아 해안에서 첫 번째 신뢰할만한 측량을 수행하였던 공적은 당연히 영국의 브로우튼(Broughton) 선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1797년 만주를 따라 남하하고, 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계속 항해하여 그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큰 만을 발견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일본 령 섬인 쓰시마와 본토 사이의 자신이 명명한 해협을 통과하여 조산(Tscho-san)(지금의 부산)에 상륙하였다. 조산은 이전에는 코레아 전체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일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최후의 거점이다. 그는 그 항구를 측량하였다. 브로우튼의 항해는 지도에서 해안 발달에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주로 흠어진 수많은 만들을 지닌 남해안에 남겨져 있는 공백들은 여전히 더 컸다.

서해안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816년 'Alceste'호와 'Lyra'호를 거느리고 코레아 해안에 숨겨진 群島를 통한 해로를 찾았던 Lord Amherst, Kapt. Maxwell, Kapt. Basil Hall 등의 항해는 이 시점에서 바로 획기적이었다. 그들은 38도 이남의 Sir James Hall's Group에서 황해에서 태평양으로 나오는 북위 34도 지점까지 서해안을



그림 1. 당빌의 조선도(1735, 51.8×35.3cm)

통과하였다. 그들은 群島에 코레아 군도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최남단의 섬들은 이미 브로우튼 선장이 목격한 섬들이었다. 서해안은 Basil 만이라는 단지 한 지점에만 닿아 있고, 반면에 암석 벼랑과 얕은 수심으로 위험한 수로 때문에 탐사선은 산을 거의 볼 수 정도의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남쪽으로 그들의 경로를 따라 항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육지에서 어떤 측량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관에서 그곳의 체류를 허락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위협하여 방해를 하였지만, 지도 측면의 수확은 주목할만하다. 그 결과 당빌의 지도는 서해안의 위치를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그림으로써 해안선이 서쪽으로 상당히 옮겨지게 되었다. 1832년 Lindsay 선장이 이끄는 'Lord Amherst'호에 승선하여 국가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는 유명한 선교사 Gützlaff의 시도는 코레아 지도의 개선에는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는 서해안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체로 Maxwell과 Hall 선장의 경로를 따라 Basil 만 내의 어느 섬 외곽에 정박하고, 그 후 북동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깊은 만에 위치한 Marjoribank라고 명명된 항구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코레아인들이 Gang-Keang(아마 남양과 같음)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여러 곳에서 거의 4주간 체류에도 불구하고 수리적 측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는 관리들과 성과 없는 담판을 하고 항구에 대한 피상적인 조사를 하는데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 시도 이래 코레아 근해에서의 측량이 신속하고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845년 'Samarang'호의 측량탐사선장 Belcher는 암초가 많아 매우 위험한 켈파르트 섬 인근을 통과하는 항로에 대한 철저한 측량을 시작하였다. 다음 해 두 척의 프랑스 戰艦 'La Gloire'호와 'La Glorieuse'호가 코레아 정부와 외교 협상을 하기 위하여 서해안을 방문하였다. 1847년 귀환하는 중에 두 선박이 고군도 혹은 고군산도 부근 대략 북위 35도 45분 동경 126도 28분 지점에서 난파되었다. 비록 이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대규모의 측량이 방해를 받았을지라도 프랑스 장교들의 측량은 서해안선이 사실 동쪽으로 현저하게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반면에 1816년 Hall의 측량은 세밀하게 연구할 여지를 남겼다.

크림 전쟁 연루 결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전함들은 코레아의 인근 해역에 여태까지보다 더 빈번히 출몰하였던 50년대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1852년 프랑스 함장 Mouchez는 프리깃함 'La Capricieuse'을 타고, 동해안을 따라 정찰 항해를 시도하였다; 동일한 해안에 대한 주도면밀한 조사는 1854년 러시아 프리깃함 'Pallas'에 실행되었는데, 그 항해는 중국의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를 확대하려는 동 시베리아 총독 Murawjew백작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남쪽으로 해안에서 2-3마일 간격을 두고 항해를 하여 이 해안 구간에서 지금까지의 측량을 보완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이 항해에서 넓고, 방어하기에 유리하고, 항상 접근 가능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 브로우튼 만(역주-동한만)의 Port Lazareff(역주-지금의 원산)항구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특히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그 세력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거점을 장악하려는 정책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1855-56년 영국과 프랑스 함대의 수많은 항해로 이 측량의 올바름이 확증되었다. 우리는 그 밖에도 포시에트 항 혹은 당빌 만의 측량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 비록 수많은 지점들이 여전히 특수한 측량을 필요로 할지라도 올해 코레아 동해안의 탐사는 끝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해안의 매우 단조로운 해안선은 그 측량을 위한 어려움이 적은 반면, 수많은 만들과 섬들로 인해 측량조사선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남해안과 서해안의 측량은 여전히 많이 뒤떨어진 상태이었다; 지속되었던 공백의 일부는 60년대 영국과 프랑스 조사에 의해 메워졌다. 이 위험한 해역에서의 일본의 개항 이후 증가하는 선박 운항에 최소한 안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1859년부터 1861년까지 함장 Ward 휘하의 'Actaeon'호와 'Dove'호 등의 측량선은 코레아 해협에서 남해안을 따라 순항하였다. 서쪽 방향의 측량은 1863년 켈파르트의 인근 해역과 북쪽으로 인접한 제도의 항로를 조사한 Wild 선장의 항해에서 보완되었다. 프랑스인 선교사의 처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하여 Roze 제독 지휘하에 실시되었던 프랑스의 출병은 정치관계 분야보다 코레아의 지도 분야에서 더 중요한 성과를 올렸다. 방어 시설이 없는 상업중심지인 강화의 습격과 약탈을 가져 왔던 군사적 개입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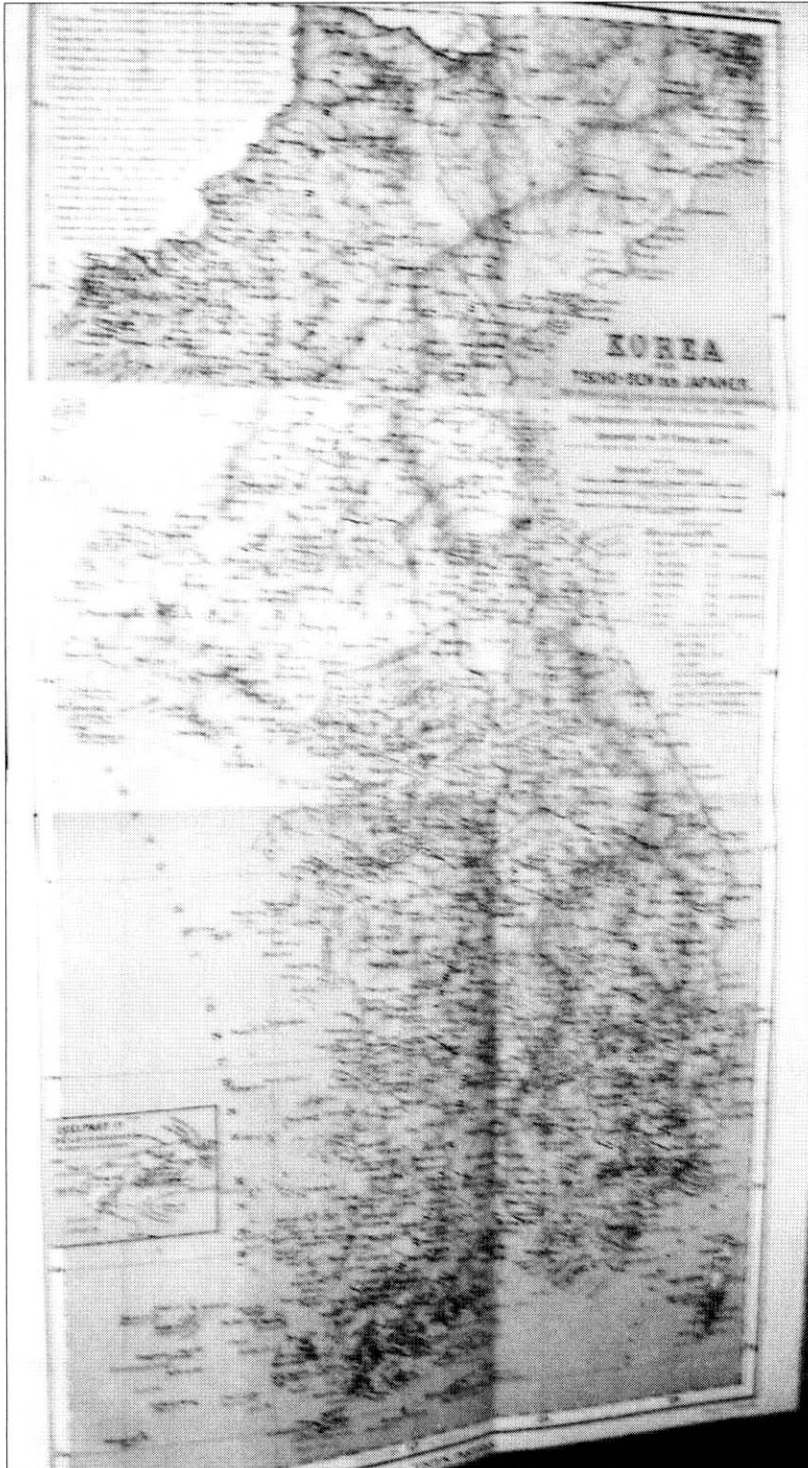


그림 2. 일본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1875, 128×95cm)

국 프랑스 영향력의 거부로 끝났지만, 그러나 수도로 진입할 수 있는 한강 입구뿐만 아니라 Impératrice-Golf(역주-경기만) 및 수많은 섬들의 측량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우리는 서해안에서 몇몇 소규모의 조사를 미국 선박의 덕분으로 생각한다. 미국 함정들은 1867년과 1868년 평양과 대동강 입구에서 아마 코레아 정부에 의해 파괴된 미국 선박들의 조사를 해안선을 조사할 기회로 이용하였다. 1871년 당시 미국 정부는 소형 함정 한 척을 파견하여 코레아 정부를 위협하고, 문호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의 파괴를 구실로 이용하기를 시도하였으나 이 시도는 미국 군함이 초기 성공 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귀환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프랑스의 한강 조사는 몇 가지 점에서 보원을 가져왔다.

그 외에도 유럽인들이 접근 가능한 코레아의 몇몇 문헌들은 코레아의 지도 제작에 매우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코레아의 서울에 보관된 지도들의 중국 사본은 예수회 신부들과 당빌의 지도 제작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또한 유사한 지도들은 코레아 자료에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 연구자인 von Siebold는 그의 획기적인 저서에서 이 자료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그러나 지도는 지도 작성의 수학적 원리에 아주 정통한 숙련된 지도제작자들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지리적 관계가 상당히 정확히 표현될 수 있었다. 폰 지볼트의 지도는 전문 용어 체계가 일본어의 번역과 발음에 따라 기입되었다는 점에서 당빌의 지도와 다르다. 또한 프랑스인의 선교를 위하여 1846년 신부 겸 선교사인 Andrée Kim(역주-김대건 신부)이 그렸던 지도는 코레아의 발음에 따라 지명을 붙여로 직접 옮기는 정서법을 택하였다. 그 외에도 이 지도는 물론 해안선이 여전히 상당히 틀리게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또한 많은 것을 상세히 보충하였다. 1866년 강화가 습격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코레아 지도가 프랑스인의 손에 들어갔다; 그 지도는 마지막에 언급한 지도에 표시된 상황의 표현과 단지 약간 차이가 난다. 또한 해안의 윤곽은 부정확한 경도선의 표시로 인하여 일그러져 나타난다; 지도들이 Ridet, Féron, Calais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되었고, 그들의 일부는 많은 해를 코레아에서 살았고, 운 좋게 박해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의 표 10이 주로 근거로 한 코레아 지도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신 지도는 1875년 일본국 육군참모국이 제작한 것이다. 강화의 코레아 방어시설에 대한 일본 측량조사단이 공격을 받은 후, 일본의 코레아 출정을 계기로 출판되었다. 물론 이 작성이 무슨 자료에 기초하였는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두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도쿄에서 일본인들 및 한국인들에 의한 코레아에 대한 많은 지도 작업과 국가의 서술, 거리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는 지도들이 일본 육군의 장교들의 적국에서 정탐 활동을 위한 지리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영국인, 프랑스인, 러시아인, 미국인 등의 측량이 단지 부분적으로 이용될 정도로 이 지도는 많은 부분에서 성급하게 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상당히 신뢰 가능한 정확도를 가진 천문학적 관찰을 통한 위치 결정과 측량 덕분에 이미 확정된 많은 섬들과 해안선이 또 다른 위치에 지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천문학적 위치 결정과 측량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일본 지도에서 결핍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또한 해안선에서 수리적 측량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일본 표현에 이것을 끼워 맞추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발견된 대상물에 대한 유럽인의 이름 부여는 일본 지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인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결핍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지도는 코레아에 대한 지도적 표현에서 중요한 진보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인의 지도는 지지 내용이 풍부하고, 대개 수도와 큰 촌락 사이의 거리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가로망의 표시를 포함하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천의 흐름에 관해 더 훌륭하고 적절한 묘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도가 대륙과 관련해서 그 두 접점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차단은 특히 주목을 끈다. 한편 서해안의 만들은 이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육지로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 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영국 해도의 암시와 추측이 맞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이 현저하게 동쪽으로 밀어 옮겨짐으로써 이 세기 초 남쪽 부분에서처럼 서해안의 북쪽 부분에서도 동

## 개항 이전 한국 지도의 형태 변천

일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쪽과 남쪽의 군도들은 여태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육군 참모국의 지도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임박했던 전쟁 위협이 다행히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상당히 긴 교섭 후에 1876년 2월 26일 지리를 이용 가능케 하는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럼으로써 일본은 두 개의 항구 개방 외에 모든 해안에서 자국

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측량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일본 해군성은 지난 해 이 포괄적인 권리를 활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일본 해군성은 조약 상의 두 항구인 부산과 원산을 세밀하게 그린 지도를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을 따라 위험한 수로에 위치한 전 지점에서 측량을 실시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 지도의 기초 자료는 많은 부분에서 수정되고 보완되었다.